소록도에 포교당 보다 자원봉사를

총무원장 자승 스님 5월 약속 지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동지를 앞두고 국립 소록도 병원을 찾아 한센병 환자들에게 동지팥죽과 김장김치, 겨울 이불 등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5월 3일 소록도를 방문했던 자승 스님에게 당시 주민들이 동지에 팥죽을 먹고 싶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자승 스님은 이 날 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만든 팥죽 600인 분을 주민과 환우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것을 기원했다. 조계종은 이날 팥죽나눔 이외에도 주민들과 국립소록도 병원에 김장김치(개인당 10kg 450명분/병원용 10kg 10박스)와 가구당 한 채씩 이불 450채를 전달했다.

나눔 활동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과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무각사 자비봉사단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

자승 스님은 환우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겨울 이불을 전달하기도 했다. 스님은 환우들에게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이불 덮으시고 춥지 않게 겨울 잘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우들은 자승 스님이 직접 이불과 김치 등을 전달하자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불교계의 봉사활동이 미약한 상황에서 자승 스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5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방문하자 종교를 초월한 자비를 느낀다고 밝혔다.

김명호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회장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감사해 한다. 여기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시설 밖에 없는데 이렇게 직접 스님들이 찾아주시니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록도는 교회 7곳과 성당 2곳, 원불교 1곳 등 이웃종교 시설이 다양하게 분포하면서 활발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지만 사찰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자승 스님은 5월 경 이곳을 찾아 환자들을 위로했고, 그 후 불교계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꾸준히 소록도를 방문해 봉사를 펼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이와 관련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 병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록도에서의 불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자승 스님은 소록도에 포교당 건립 보다는 자원봉사 강화가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배석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에게 소록도와 협의해 불교 자원봉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처음 소록도에 올 때는 포교당 건립도 구상했으나 이미 이웃 종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오히려 환우들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불교는 자원봉사자들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소록도 환우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승 스님은 이날 자원봉사에 참가한 무각사 자비봉사단에게 사회복지교육 수료증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동지를 앞두고 국립소록도 병원을 찾아 한센병 환자들에게 팥죽과 이불 김치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사회를 아름답게 가꿔 주길"

상월조사 탄신100주년 기념대재…MB 봉축 메시지

천태종 중창조 상월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료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은 12월 2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 봉행대재를 봉행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대조사의 원력과 법행이 아니었다면 어찌 천태 법맥이 이어졌겠느냐"며 "한마음이 항상 청정하면 곳곳에 연꽃이 피어나리라"라는 법어를 내렸다.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봉축사에서 "대조사의 몸이 내 몸이요, 내 몸이 대조사의 몸이니 자기를 존귀하고 청정하게 하면 날마다 대조사님 오신 날, 날마다 기쁜 날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축사에서 "상월 스님의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지표는 불교계가 공리공론을 지양하고 실천적 활동을 추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상월원각대조사께서 1967년 한국 불교 중흥의 염원으로 천태종을 중창해 한국불교사에 큰 혁신을 했다"며 "천태종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구도와 봉사를 실천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꿔달라"고 당부했다.


12월 22일 상월조사 탄신100주년 기념대재에서 종정 도용 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있다.

한편 상월 대조사는 조선시대 억불로 와해된 한국 천태종을 중흥시킨 선지식이다. 1945년 구인사를 창건했고,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언한 후 1967년 '천태종 대각불교 포교원'을 정부에 등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지역협의체 구성 템플스테이 활성화 하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해외연수 현장서 한 목소리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12월 5~10일, 12~17일 중국 광저우·홍콩 일대에서 제7회 2011 템플스테이 운영자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41곳 120여 명의 운영자 스님·실무자들이 두 차례로 나눠 운문종 발원지 운문사, 혜능선사가 주석하며 법을 전한 광저우 남화선사, 〈육조단경〉을 설한 대감사, 오조홍인 대사의 의발을 갖고 몸을 피했던 혜능 선사가 15년 만에 삭발 수계하고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광효사를 둘러보며 전법포교의 원력을 다졌다. (차주 상보)

대표단 일원은 차로 이동하는 시간 내내 스피치 시간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의견 교환은 세미나를 통해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14일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을 좌장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역별 모임을 중심으로 각 지역 템플스테이 사찰의 현안을 듣는 자리가 진행됐다.

세미나 1부에서는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한 사찰협의회 구성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성원 스님(제주 약천사 주지)은 "단체 권역별로 결속력이 약하다. 정부예산을 받기 위해 사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지역 도 단위 별로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홍보, 주지 스님과의 관계, 사후관리 방안 등이 논의 됐다. 가장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 받는 백담사를 비롯해 우수사찰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여여 스님(서울 묘각사)은 "후기를 작성한 블로그를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들이 참가 이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일감 스님(전주 금산사)도 "해인사 템플스테이 당시 템플스테이 인터넷 까페가 4개 가량 만들어졌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니 흐지부지 됐다. 실무자와 스님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담사 백거 스님의 발언을 세미나에 참여한 스님들이 경청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륜 스님 화쟁리더스포럼 강연

법륜 스님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존과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12월 22일 화쟁리더스포럼 송년특강의 강사로 나서 '화쟁사상과 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스님은 이 날 화쟁 사상에 대해서 설명한 뒤 통일 문제가 한반도의 가장 큰 과제라며 남북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법륜 스님은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을 내려놓고 보면 남북문제는 전쟁과 분단이 낳은 희생자의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찰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렵게 꼬이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기정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사람들에게 사회적·민족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평화통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또 "세상의 모든 일이 불교이다. 불교적 통찰력을 키우면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제반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관'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범·주성원 기자

"사회현상 불교적 시각으로 조명"

허우성 교수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대중적·학술적 성격을 모두 아우르는 계간지를 만들겠습니다."

허우성 경희대 교수(철학과·사진)가 계간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임기는 2년.

허우성 교수는 12월 22일 불교평론 편집회의에서 임기만료된 박경준 편집위원장 후임으로 선임돼 불교평론 제작과 편집방향을 주관하게 된다.

허 교수는 "〈불교평론〉은 편집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술적 성격의 연구논문이나 기고문 형식을 강화해 다른 학자들이 불교평론을 보고 충분히 인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우성 교수는 "〈불교평론〉은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역사 정치 사회현상을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 비판 조명하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시평(時評)잡지이다. 이러한 대중성을 바탕으로 학술적 부분도 강화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우성 교수는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불교적 시각으로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국 사회는 매우 다이나믹하고 빠르게 변한다. 여기에는 정치·경제가 발전한 장점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단점도 가져 왔다"며 "이 스트레스는 특히 언어생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다. 툭하면 짜증내고 욕설을 하고 거칠어진다. 불자가 1000만이라는데 악성댓글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불교는 이러한 다이나미즘의 어두운 면의 이유와 그 구조를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불교평론이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허 교수는 1953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철학과 교수로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철학과 현실'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벽 암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승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암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입종서류 입종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